

여름밤, 별이 쏟아지는 순천만에서 하룻밤을 누워보세요

순천만천문대, '2025 전남 과학문화지원사업' 선정

월식 등 특별한 천문현상과 함께 밤샘 천문 체험 운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만천문대가 「2025 전남 과학문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여름부터 가을까지 밤하늘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천문 체험 프로그램 '쫄쫄새워 내 별 찾기'(이하 쫄쫄별), '밤 새워 내 별 찾기'(이하 밤별)를 올해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더운 여름밤, 별빛을 따라 밤을 지새우며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특히 8월 12일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9월 7일 '부분 월식' 등 천문현상에 맞춰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밤하늘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쫄쫄별'은 매달 단 한 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진행되며, 천체망원경 조작 실습, 별사진 촬영, 투영실 영상 관람, 천문·문화 융합 강연,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하는 '별러닝 누워 내 별 찾기'는 큰 호응이 기대된다.

또한, 보다 간결한 체험을 원하는 참여자를 위한 '밤별' 프로그램은 금요일 밤마다 진행되며, 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회차별 15명 내외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순천만습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밤을 새워 별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이 순천의 여름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과학을 감성으로 전달하는 순천만천문대의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체협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습지 누리집(<https://scbay.suncheon.go.kr>)을 방문하거나 순천만보전과(061-749-607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함평군, 휴가철 맞아 관광 지원 확대

여행 지원금 비롯한 각종 할인 혜택 제공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블루 워케이션(Blue workation)', '함평 두 번 즐기기' 등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남도 및 전남관광재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블루 워케이션은 기업 재직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함평 대표 관광지인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휴가와 업무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에게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의 지원금과 함께 갯벌 체험, 해수욕 등 다양한 해양치유·힐링 프로그램도 제공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레일과 협력해 '함평 두 번 즐기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코레일의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이용해 함평을 찾는 여행객에게 운임의 50% 상당의 할인쿠폰과 함께 함

평군 온라인몰 '함평천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쿠폰도 지원한다.

숙박비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전남관광플랫폼(JNTOUR)'을 통해 숙박 시설을 예약하면 1박당 최대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평군은 이 같은 관광 지원책을 통해 여름철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문화관광포털 www.hampyeong.go.kr을 참고하거나 관광정책실(☎320-2202)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을 찾는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25일 담양에코센터에서 읍·면사무소, 보건소, 복지관 실무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편된 통합관정체계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외에도 재택의료센터, 방문건강관

담양군,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실무자 교육 추진

통합관정체계 개편 내용 및 보건 분야 사례 연계 전략 공유

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보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 내 사례관리 전략과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다가오는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역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2025년 로컬 콘텐츠 페스타' 참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 「2025년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가해, 무안 대표 농수특산물과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전국에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KBC 광주방송과 지방자치TV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 감소 기업과 우수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선보였다.

무안군은 무안수산물, 엄마김치 등 판매 우수업체와 함께 참가해 ▲프리미엄 지주식 곱창김 및 돌자반 등 각종 수산물 ▲전통의 손맛을 자랑하는 엄마김치 등을 소개하며, 1,000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했고, 약 700만 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및 지급 첫 시행

화순군 동북면(면장 최인환)은 지난 7월 27일 (일) 고령자 및 거동불편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지류형 '화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면은 이와 함께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한 '폭염 대응 현장 방문 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최00(91세) 어르신과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가정을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작성 후, 즉석에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밖에도 못 나가는 데 이렇게 직접 와서 챙겨주시 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장흥군새마을회,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진행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일진)는 새마을지도자 20여 명과 함께 지난 25일, 대덕읍 도동마을에서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의 대상은 세 자녀를 양육 중이며 8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노후 주택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봉사에는 대덕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안진철, 부녀회장 김복순)가 함께 참여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날 봉사자들은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타일이 깨져 있던 입식 화장실을 수리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하였고, 겨울철 단열이 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아울러 낡은 창호를 교체하고, 집안 전체 대청소와 마당의 잡초 정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